

차례

- ✓ 인터뷰(1) SUM(Students Unification for Unification) 학생대표 p.2
- ✓ 통일보건의료세미나 p.3
- ✓ 북한 영화 기획전 p.5
- ✓ 인터뷰(2) 인턴 체험기 p.6
- ✓ 제2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p.7
- ✓ 인터뷰(3) 신임 운영위원 p.8
- ✓ 연구 프로젝트 동정 p.9

인사말



남북한 사이의 관계와 교류는 아주 차갑게 굳어져 간 2016년이었지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보건의료센터 활동은 뜨거운 열정과 활발한 진전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의, 치, 간, 약학 학생들의 통일모임인 SUM의 발대식을 필두로, 치의학 기획단, 간호학 기획단, 약학 기획단이 잇달아 발대식을 통하여 구성되어, 기존의 보건의료 기획단과 더불어 의료원 안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보건의료센터 내 전문기구들의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 영역은 통일의 과정 및 방법과는 상관없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연구, 정책 입안, 교육과 훈련, 시범 사업 등은 통일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가 우리 민족 앞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연세의료원에 '제중원 글로벌보건개발원'이 창설되면서 통일보건의료센터도 그 산하의 조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제보건의료활동의 큰 틀에서 통일보건의료 활동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크게 기대합니다.

2017년, 모든 연세의료원 가족들이 통일에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본 센터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보건의료센터소장 전우택



1년간의 SUM(숨) 활동을 마치며

SUM Yonsei 대표 (의과대학 4년, 김진현 학생)



작년 이맘때부터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기가 끝나고, 입김이 도드라질 무렵, SUM이라는 학생통일보건모임을 시작했었습니다. 다시 나무 위에 쌓인 눈이 바람에 날리는 요즘, 그때를 떠올려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배운 통일은 인도주의와 한민족의 동질성이라는, 도덕적인 존재였습니다. 더불어, 노래 <우리의 소원>을 반복하면서, 통일을 당연히 이루어야 하는 시대의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더 이상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의문은 곧 저를 더러워진 어린아이처럼 안절부절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라는 매력적인 문화 바이러스가 만연한 요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까요. 그게 제가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저에게 다른 중요한 이유도, 사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통일의 필요성, 의미, 객관적 정보, 문제점, 무엇보다도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었습니다. 단지, 제 가치관의 뼈대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의료 쪽에 속해있다 보니, 통일보건의 처음 시작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편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SUM은 몇 명의 의치간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는 통일 관련 책이나 영화를 보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고, 콘퍼런스와 행사에 참여하기도 또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 저에게 가장 다행이었던 부분은 SUM 참여자들은 양심의 자유 아래 모였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생각이 겹치거나 부딪쳤습니다. 저는 많이 알게 되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 사고구조가 무너지거나 확장되면서, 제 본연의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인으로서, 한 분야의 책임자로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일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는 불가능해 보일 뿐,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SUM은 조금이나마 통일에 관심이 있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모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9차 통일보건의료세미나

- 일시: 9월 27일
- 주제: 북한의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 고찰 연구 보고회
- 장소: 의과대학 회의실
- 강사: 김소윤 교수(의료법윤리학과)
- 주요 내용: 북한의 감염병 관리 체계 현황 정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북지원 고찰 방안 모색



제20차 통일보건의료세미나

- 일시: 10월 26일
- 주제: 1부 - 약학기획단 발대식
2부 -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
- 강사: 전우택 교수(의학교육학과 교수)
- 장소: 연세암병원 서암강당
- 주요 참석자: 한균희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장 외 교수 재학생, 손은선 세브란스병원 약무국장 외 약무국 소속 약사, 조양연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 등



통일보건의료센터 약학기획단 발대식 참여 소감(1)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5학년 정성서

초등학교 시절, 나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믿었다. 때문에 삼촌과 사촌 형들이 입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나이가 되면 통일이 되어 있을 테니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며 혼자 즐거워하곤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 들어갔고, 결국 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군대를 다녀왔다. 금방 될 것만 같았던 통일은 2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한과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분단되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과연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번 통일보건학회 약학대학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통일시기에 대한 추측을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10년 후, 혹은 50년 후 등 다양하다. 이것은 결국 아무도 그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의 반증이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통일이라는 것이 당장 내일이라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둘째로는 이처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을 위해 '보건의료계, 특히 약학분야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번 발대식에서 들었던 내용들과 교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통일 후 맞이하게 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세대학 세브란스에서는 의학/치의학/간호학에 이어 약학분야에서도 통일보건학회 발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미래 약학분야에서 일하게 될 우리들 또한 이제는 통일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일만이 아닌 우리의 일이며, 함께 준비해 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통일보건의료센터 약학기획단 발대식 참여 소감(2)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3학년 장하얀

우리 세대가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요즘, 나는 우리가 미리미리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통일이 갑자기 닥치더라도 그보다 더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약학기획단 발대식에 참여한 것은 큰 의의가 있었다. 통일이 된다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떠넘겨 질 것인데,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의 부족한 점과 장점을 이해해야, 향후 통일이 왔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요즘 대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초등학교 때처럼 통일글짓기나 포스터그리기 대회도 없고, 저마다 자기 전공을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바쁘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 미래도 준비하기 바쁘는데, 어떻게 나라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약학대학 자기소개서에서는 '통일부 인가 대북 의료봉사 단체인 하나반도 의료연합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진학 후에는 공부에 바빠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대식은 모두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었을 것 같다.

FM을 할 때면 '통일연세'라고 외치는 연세대학교가 보건의료계에서 통일을 준비하는데 앞장서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그 중에서도 약학 기획단에 우리 약학대학이 속하게 되어 큰 책임을 느낀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중에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 탈북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몇 배는 심각하다고해서 영화를 보고 참 많이 울었다. 그 외에도 가끔 TV 등의 매체에 나오는 새터민들의 이야기는 마음을 울리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까지 한다. 발대식을 통해서, 통일은 나라의 미래 아니라 나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다. 몇 십년 전에는 우리와 한 가족이었던 북한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일이 왔을 때, 일선에서 북한 동포들의 건강을 책임질 우리를 그려본다.

2015년 12월, 통일보건의료센터는 북한을 주제로 제작되어 국제적 주목을 받은 영화 두 편을 관람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번 기획전은 이대 후문에 위치한 필름포럼 영화관을 대관하여 진행하였으며, 관심 있는 교직원과 학생, 연구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2016.12.13(화) / 필름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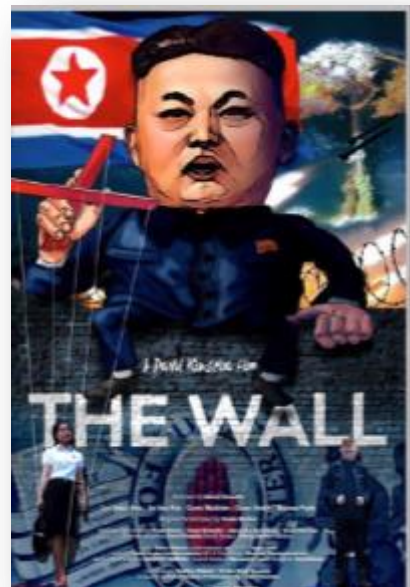
[태양 아래, 영화 줄거리]

평양에 사는 주인공 진미가 조선소년단에 가입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상을 조작·연출하려는 북한 당국의 시도를 카메라에 생생히 담아냈다. 특히 노동당 군중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건넨 어린이가 영화 주인공인 진미로 확인되면서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낳았다.

2016.12.20(화) / 필름포럼

[The wall, 영화 줄거리]

탈북여성과 아일랜드 소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인권 유린의 북한 체제 비판한 작품으로,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인권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본래 이 영화는 젊은 북한 여성 시인의 성장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여주인공과 가족, 이웃까지 모두 북한 정부에서 동원한 연기자임을 발견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로 하고 편집과정에서 의도를 바꾸어 제작한 영화이다.



인턴 체험기-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의 여름

정일영 학생 (美 콜롬비아대학원)

저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 석사과정(Master of Public Health)을 이수 중인 정일영입니다. 미국에서는 MPH 이수조건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본래 국제보건과 건강불균등 그리고 북한에 관심이 많았기에 한국에서 북한과 관련된 실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6년 여름에 연세의료원의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 전우택 교수님과 함께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심포지엄을 함께 준비하면서 국내의 보건의료의 지형과 정책적 구조를 경험하고, 통일보건의료계의 많은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느낀 것은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 특히 공중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공중보건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분야이지만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훨씬 더 널리 알려져 있고 그 규모도 훨씬 큼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보면서 한국의 공중보건의료의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일했던 연구 선생님들을 보면서 한국 공중보건의료계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구조적으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는 연구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큰 희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명의 환자를 돌보는 치료적 차원과 하나의 인구를 생각하는 예방적 차원이 상호작용을 이룰 때 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 북한의 이웃들을 처절한 겸손과 치열한 열정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6 제2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통일보건의료센터는 11월 7일 에비슨의생명 연구센터 유일한 홀에서 '세브란스 통일의 밤' 행사를 열었다.

올해 2회를 맞는 통일의 밤 행사에는 윤도흠 의료원장, 김광만 치대학장, 전우택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손은선 약무국장, 약사,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북한전통음식 문화연구원에서 준비한 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 음식인 인조고기 밥을 맛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정우진 보건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통일보건의료센터 산하에 발족한 약학, 치의학, 의학·보건학, 간호학, 학생 기획단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통일을 대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김성재 교수(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와 전우택 소장을 패널로 북한실상과 통일전망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에 관심있는 모든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6 제2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보통의 밤
맛있는 밤

2016년 11월 7일(월) 오후 6시~8시 30분
연세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 유일한 홀

- 자녀 식사(오후 6시~6시 30분)**
[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 음식 체험] 사회: 정우진 교수, 보건대학원
- 개회사: 윤도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 1부(오후 6시 30분~7시 30분)**
[통일보건의료센터 산하 기획단 발표]
 - 약학 기획단: "North Koreans are not just anybody's people in South."
 - 치의학 기획단: 북한에서 발견된 치의학 연구논문 현황
 - 의학·보건학 기획단: 북한의 전염병 관리
 - 간호학 기획단: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간호교육
 - 학생기획단(5남자):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학생으로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까?
- 2부(오후 7시 30분~8시 20분)**
[공개 좌담-통일에 대한 모든 것: 다양한 질문과 대답]
 좌담: 김성재 교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전우택 교수(의학교육학과, 통일보건의료센터소장)
- 3부(오후 8시 20분~8시 30분)**
[통일보건의료센터 미래 비전]

사건장: uni-health@yuh.ac (10월 31일까지) 



신임운영위원- 나는 왜 통일보건에 관심을 가지는가?

김상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016년 2학기 통일보건의료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서 나 스스로에게도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내가 찾아낸 이유는 아마도 국제 보건 정의(Global Health Justice), 여성주의 윤리적 관점 (Feminine ethics Perspectives), 그리고 전문가적 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제보건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상에 있는 보트 피플이나 난민들이나 또 새터민이나 아직 북한이나 내전 지역에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은 건강이라는 기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 세계 시민이다. 그들과 나의 유일한 차이이라면 한 국가의 주권 아래 속했느냐 아니냐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건강권은 주권아래 있느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주어져야 마땅한 권리라는 생각에 닿았기 때문이다.

둘째,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에 대한 권리임에도 취약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미충족 요구에 대해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군가는 이들의 약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그들의 요구를 목소리 높여 주장할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 윤리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관심사는 바로 이러한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소외되는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를 찾아 그들의 약함을 대변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터민이나 북한의 우리 동포 한 명 한 명은 정치/경제/사회의 취약한 상황 때문에 스스로가 그들의 건강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통일보건의료센터가 추구해야 하는 일은 여성주의윤리적 관점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활동이리라.

셋째, 나로 하여금 통일보건의료센터의 여러 활동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다. 간호사로서 국제간호협회의 윤리강령에 동의하고 따라야 하는 나로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건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지원할 책임을 사회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전문가적 책임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사회적 간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며 사회적 필요와 건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와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통일보건을 준비하고 응답하는 활동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통해 도전을 하련다. 여러분은 세계시민인가? 약한 자를 도와 그들의 요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을 사회와 함께 공유하기로 서약한 전문가인가? 그렇다면 여러분과 동일한 세계 시민인 난민, 새터민, 통일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동포들을 향한 그들의 건강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준비하며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

연구 프로젝트 동정

통일준비를 위한 사회치유연구 외국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발주처: 연세대학교 (연세미래선도사업)
- 연구책임자/연구기간: 전우택 교수/ 2015.10.01 – 2016.09.30
- 사회적 트라우마와 사회치유의 개념과 내용을 정신의학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융합적으로 분석 고찰
- 사회치유를 시도하였던 북아일랜드 및 캄보디아 해외사례들에 대해 분석 고찰
- 향후 통일을 대비한 한국형 사회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 및 제안

사회적 통일준비를 위한 연구

- 발주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 연구책임자/연구기간: 전우택 교수/ 2016.05.26 – 2016.10.23
- 제주4.3의 남남갈등 극복 사례검토를 통해 사회통합 방안 마련
- 북한이탈청소년 신체 및 정신 건강조사를 통해 통합적 정착지원 정책 제안

새터민 간호사가 경험한 남한의 간호교육과정 연구

- 발주처: 통일보건의료학회
- 연구책임자/연구기간: 추상희 교수/ 2016.10.01 – 2017.06.30
- 새터민 간호사가 경험하는 국내 간호교육의 경험을 중심으로 적응과정, 어려움, 장애요인 파악
- 공식 지원 지지시스템 구축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통일 이후 간호 교육의 통합에 필요한 간호교육의 방향, 내용 수립에 효율적인 방안 제시

기타·광고

2017년 주요 활동 계획

통일 관련 학생 교육 강화

- 의과대학 선택과목 <통일과 의료> 과목 개설: 3분기/8주 2시간씩 총 16시간 과정
-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전체 Grand Round 교육 과정에 통일 관련 2회 수업 진행
- 간호학, 치의학, 약학 교육과정에 통일 관련 교육 내용 포함 논의 및 시도
- 대학원 인문사회의학 협동과정에 통일 관련 교과목 운영 (2학기)
- 상기 교육 내용을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과의 협력으로 진행

통일보건의료 관련 정보

통일보건의료학회

- 2017 춘계학술대회: 2017.06.10(토)
- 2017 추계학술대회: 2017.12.02(토)
- 학술연구 지원비 공모: 2017.09.04(월) ~ 10.02(월)



통일보건의료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TEL 02-2228-0995 ✉ E-mail uni-health@yuhs.ac

🏠 http://www.yuhs.or.kr/mssn_realize/CHUK/intro/

📘 Facebook | www.facebook.com/ys.unihealth